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민족유산보호 부문에서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청산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

조 인 철

민족유산보호부문에서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청산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1960년대이후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였다.

이 시기 반당반혁명분자들이 끼친 사상여독으로 말미암아 민족유산보호부문에서는 실학과인물들과 봉건시대의 명장들을 비롯한 개별적인물들의 《업적》을 과대평가하거나 과거유산을 신비화함으로써 복고주의를 고취하고 봉건유교사상을 퍼뜨리는 경향들이 일부 나타나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있지 못한데로부터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에 봉건적이며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여 덮어놓고 나쁜것으로 여기면서 다 켜버리려는 경향들도 나타나고있었으며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이후 반당반혁명분자들이 퍼뜨린 봉건유교사상을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이 심화되자 옛날 유적이거나 유물을 발굴하고 관리하는것은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저촉되는것처럼 여기면서 력사유적유물들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있는 현상들도 나타나고있었다.

이 시기 민족유산보호부문에서 나타난 경향과 편향은 이 부문에서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청산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로부터 민족유산보호부문에서 반당반혁명분자들이 끼친 사상여독을 청산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53(1964)년 9월 1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하신 담화 《력사유적과 유물보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와 주체56(1967)년 6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하신 담화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민족유산보호부문에서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청산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당반혁명분자들이 뿌려놓은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기본은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2권 313페이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청산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방침은 이시기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게 하는 정당한 방침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유산보호부문에서 반당반혁명분자들이 끼친 사상여독을 청산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신데 기초하여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유산보호부문에서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

독을 청산하고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과 사상교양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전원회의결정관철을 위한 지도사업요강을 전달침투시키며 반당반혁명분자들이 저지른 죄행에 대한 자료를 아래당조직들에 내려보내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와 함께 성, 중앙기관들에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일군들로 무어진 지도소조를 파견하여 집중지도사업을 하게 하시고 지도소조들이 사상투쟁을 옹계 지도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워 그들모두가 위대한 수령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도록 하는것을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시고 사상교양사업이 이 목적달성으로 철저히 지향되게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매 시기 제시하시는 로선과 방침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주체56(1967)년 8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아래당조직에 이르기까지 수령님의 교시를 정확히 전달침투하는 체제를 더욱 튼튼히 세우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민족유산보호부문에서는 반당부르조아수정주의분자들이 끼친 사상여독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이 부문사업전반에 당의 유일사상체제가 철저히 서게 되었다.

민족유산보호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제때에 접수하고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며 모든 사업을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로 하여 재여보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의 요구에 맞는것이 라면 무조건 끝까지 집행하는 기풍이 서게 되었다.

력사박물관들에서는 진렬전시체제와 내용을 철저히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기초하여 전개하는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진렬전시된 문화유물에 대한 해설강의를 당정책화하였다.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가 있는 주체56(1967)년 말에 위대한 수령님의 석고상을 진렬실 중앙홀에 다시 정중히 모시고 진렬실의 한쪽 방을 내여 수령님의 혁명력사연구실도 새로 꾸렸으며 주체58(1969)년 10월 10일 당창건기념일을 계기로 연구실을 보다 넓고 리용하기 편리한 건물로 옮기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박물관활동과 관련하여 주신 교시들과 유적유물보존과 박물관부문에 주신 현지교시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편찬하였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급투쟁과 관련하여 주신 교시, 고려자기에 대하여 주신 교시, 임진조국전쟁에 대하여 주신 교시를 비롯하여 수령님의 교시를 진렬실들의 중요한 부분마다 더 많이 제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진렬을 전개함으로써 진렬전시와 해설에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철저히 구현해나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유산보호부문에서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청산하고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 다음으로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지 않는 일부 문화유산들을 없애고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복고주의, 민족허무주의,

봉건유교사상 등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력사박물관들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요구에 맞게 소장유물들과 전시품들을 전반적으로 후열하고 진렬전시와 해설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원칙을 지키기 위한 사업들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이후 소장유물들과 도서들, 전시품들을 전면적으로 후열하고 보존할 가치가 없는 유물들과 도서들, 전시품들을 없애버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박물관진렬에서 력사발전단계에 따르는 사회경제형편과 계급관계를 뚜렷이 보여줄수 있게 함으로써 참관자들로 하여금 사회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계급사회의 본질을 바로 인식할수 있게 하였다.

조선민속박물관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교시를 받아안고 박물관안의 일군들, 연구사들, 강사들속에서 수령님의 교시를 깊이 연구학습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으며 해당한 주제별연구토론을 진행한 기초우에서 전반적인 진렬개편사업을 전개하였다. 박물관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의 생활품모》,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문화습》에 대한 주제를 새롭게 진렬전시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일군들과 학술연구사들은 이를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 항일유격대원들의 생활기품에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오히 연구하는 한편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자료조사와 답사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조선민속박물관의 진렬전시와 해설사업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과정으로 일관되게 되었으며 주체가 철저히 확립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 적극 이바지하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유산보호부문에서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청산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다음으로 민족문화유산을 당적, 로동계급적원칙에서 바로 평가처리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9(1970)년 3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에게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민족문화유산을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바로 평가처리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바로 가질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는것은 로동계급의 문화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부터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오시였다고,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선조들이 창조한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 훌륭히 보존되고있을뿐아니라 우리 시대에 와서 빛을 뿌리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슬기로운 인민이라고, 우리 인민의 력사는 자연과 사회의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빛나는 투쟁의 력사이며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담긴 수많은 문화적재보를 창조하여온 자랑스러운 창조의 력사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허무주의와 복고주의를 철저히 경계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선조들이 이룩해놓은 민족문화유산을 그저 허무주의적으로 대할것이 아니라 귀중히 여길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금강산에 대한 전설 같은것도 후대들이 알게 하는것이 나쁘지 않다고, 그 전설가운데는 선녀들이 하늘에서 팔담에 내려와 목욕을 하였다는 허황한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그것을 그대로 믿을 사람은 없는것만큼 금강산전설에 대하여 해설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적들도 복구할것은 복구하여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에는 원래 고적들이 많았는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폭격에 의하여 파괴된것을 비롯하여 이러저러하게 많이 없어졌다고, 이름난것과 대표적인것은 복구하여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 인민들에게 지난날 우리 나라의 건축술을 보여줄수 있으며 후대들이 자기 인민의 력사와 문화에 대하여 알수 있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허무주의를 극복하는것과 함께 지난날의 것을 다 좋게만 보고 덮어놓고 되살리려는 복고주의도 경계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민족문화유산을 언제나 계급적립장에서 대하여야 하며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난날의 문화유산가운데는 진보적인것도 있고 반동적인것도 있으며 지어는 력사를 외곡한것도 있다고, 혁명에 리로운것은 살리고 해로운것은 버려야 한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난날 낡고 반동적인것까지 찬미하며 되살리려는 그릇된 견해를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에게 지난날의것을 보여주거나 가르쳐주는 것이 그들에 대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 사회주의교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민족문화유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처리하기 위한 국가심의위원회의조직과 관련한 대책도 세워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국가심의위원회는 옛날책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혁명에 해로운것과 해롭지 않은것을 갈라놓고 정확히 평가처리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리고 국가심의위원회는 당과 혁명, 력사와 인민앞에 완전히 책임지는 립장에 튼튼히 서서 하나하나의 민족문화유산을 신중히 대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국가적조치로 중앙에 국가심의위원회가 조직된것은 민족유산을 충분한 협의와 집체적토의를 거쳐 과학적으로 심중하게 심의평가처리하는데서 획기적인 조치로 되었다.

국가적인 민족문화유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함께 민족문화유산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부문별전문분과들도 조직되였다.

전문분과는 고전문학, 현대문학, 외국문학, 음악, 무용, 미술, 력사유적유물, 풍속유산분야 등의 분과들로 조직되였다.

력사유적유물분과에서의 평가방법은 전문가들이 전국에 널려있는 유적유물을 현지에서 촬영, 실측, 고증한데 기초하여 유적유물의 이름, 시기, 용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력사적가치와 과학공예적가치에 대하여 집체적으로 충분히 토론한 기초우에서 평가문건을 작성하여 국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력사문화유적유물부문 심의평가에서는 우리 나라의 유적유물들을 국보, 보존공개, 보관, 전문가용, 폐기 등으로 평가하여 각각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리용처리하도록 하였다.

민족문화유산심의위원회 성원들과 전문분야의 학자들, 민족유산보호부문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기본원칙과 방향에 따라 전반적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평가, 등록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여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 현지지도를 받은 유적유물들을 우선적으로 등록하고 전국각지에 있는 유적유물들을 빠짐없이 조사장악하여 등록하였으며 유적유물들의 역사적래력과 구조적특성, 발굴고증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한 사진까지 첨부하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전국적범위에서 역사문화유적유물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등록 및 평가되었으며 그것들에 대한 보존방향과 방도들이 바로세워지고 복구 및 수복처리를 위한 대책들도 세워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역사문화유적유물에 대한 심의평가와 등록사업이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 역사주의적원칙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됨으로써 수많은 문화유적유물들이 자기의 면모와 가치를 새롭게 되찾고 역사과학연구사업과 인민들에 대한 애국주의교양사업에 적극 리용되게 되었다.

이처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민족유산보호부문에서는 반당 부르조아수정주의분자들이 끼친 사상여독이 철저히 청산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게 되었다.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유산보호부문 사업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다.